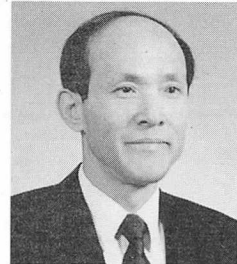


# 회복 조짐 보인다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 1. 머릿말

11월도 하순으로 접어든 요즈음 돼지가격은 예상대로 꾸준한 하향으로 드디어 1,900원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수출 지원금도 있겠다, 국내 시세도 하락했겠다, 대일 수출이 활성화 돼야 할 것이나 최근 수출업체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94년도의 냉장돈육 수입에 대한 불안감과 정책개선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의 양돈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대회를 치루었다. 바쁜 일손을 멈추고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양돈단체의 힘을 과시해주는 그 자체가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질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단합된 양돈협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2. 돈육 수출은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국내의 9월중 지육 도매가격(중심기준가격)은 kg당 423엔(3,200원), 11월 현재 지육 도매가격은 380엔(2,850원)이라 한다. 이는 삼겹살 등 비선호 부위를 통산한 평균 가격이다. 그런데 그들의 선호부위라고 하는 ①안심 ②등심 ③어깨등심

〈표1〉 돼지 가격 동향

년·월	산지가격(생체)		지육도매가격(동경)		소매가격(동경)	
	엔/10kg	전년비	엔/kg	전년비	엔/100g	전년비
'93.1	2,813	83.1	412	75.7	161	101.3
2	3,069	85.4	461	81.3	160	100.6
3	3,299	92.6	509	92.9	159	99.4
4	3,323	95.7	525	98.9	157	96.9
5	3,212	89.6	478	88.0	159	99.4
6	3,214	86.3	489	82.0	159	98.8
7	3,317	91.4	516	89.9	159	98.8
8	2,979	85.2	427	80.0	160	99.4
9			423	77.6	160	98.8

※소매가격은 어깨등심가격 기준임.

등의 가격은 어떠한가? 중심가격이 610엔(4,600원)선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국내의 돈육 수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CIF가격 기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관세는 5%이지만 거기다 다시 차액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수입가격이(610엔) 실제가격(500엔)보다 싸다면 [500엔=380엔/지육×정육환산율 100/75] 차액[110엔]은 수입상의 수익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100% 차액관세로 국가에서 흡수해 버리는 것이다.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일본인이지만, 이 부분에 신용장 위장 개설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각되므로 이 제도를 없애버릴 것으로 들려오고 있다. 지금 일

**“**  
**일본 내수시장의**  
**형태는 엔고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돈육은 쇠고기에 밀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을 선호하듯 일본에서 돈육**  
**애호가들은 특정부위를 찾고 있으므로**  
**부위별 소매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형성된다**  
**”**

본내수시장의 형태는 엔고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돈육은 쇠고기에 밀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을 선호하듯 일본에서 돈육 애호가들은 특정부위를 찾고 있으므로 부위별 소매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소매가격은 근당 평균이 960엔(160×6) 즉 7,200원이지만 특정 부위는 10,000원/근 도 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냉장육의 가격은 냉동육보다도 더 좋은 시세로 거래되고 있으며, 점차 냉장육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표2〉 연도별 수입현황(일본)

(단위: M T)

	냉장육		냉동육		부산물	계
		%		%		
'90	39,502	11.6	302,011	88.4	1	341,514
'91	70,622	16.0	371,239	84.0	1	441,862
'92	113,961	24.4	353,434	75.6	17	467,212
'93.1-8	78,914	26.7	216,984	73.3	20	295,918

양돈업이 3D산업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지탱할 수가 없으니, 자국의 소비량만 충당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추세가 덴마크, 대만 등에서 엿보이고 있다. '94년도의 냉장돈육 개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나 미국도 멕시코 등지에 수출선이 많다는 것이고 보면 조금은 안심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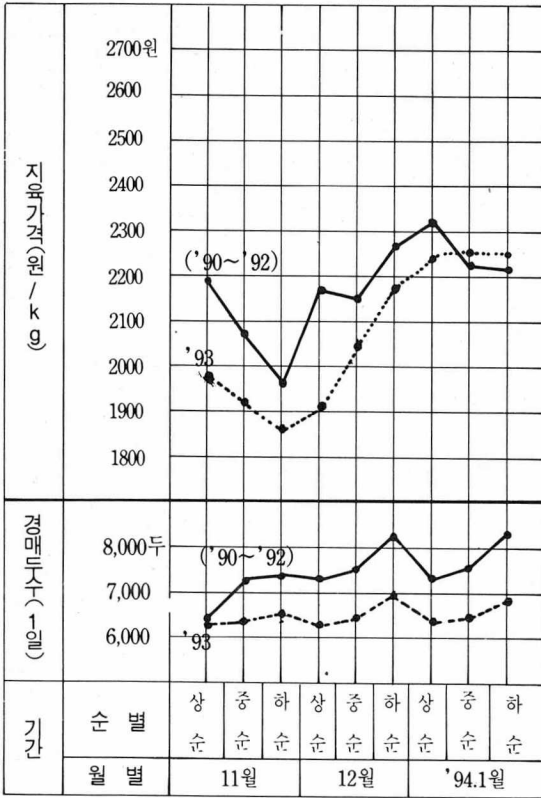
당면 문제로, '93년도 수출돈육의 장려금에 관한 문의가 많은 관계로 〈표3〉을 제시하며 서류정리가 된 곳

〈표3〉 업체별 수출실적

(단위: kg, \$)

	업체명	(1-9월)	
		물량	금액
냉동육	롯데햄	1,232,907	6,677,266
	제일제당	1,202,894	6,425,187
	대성식품	1,047,609	5,703,691
	제일농장	626,321	3,376,145
	천미통상	535,844	2,867,420
	우석식품	533,134	2,834,601
	강동산업	440,000	2,369,012
	성일유통	361,000	1,909,139
	풍국식품	317,200	1,731,905
	두송상사	181,483	920,344
	(주)진주	191,269	1,039,070
	아람코	326,800	1,814,950
	진주햄	70,051	367,808
	(주)선진	71,000	409,063
	삼원농역	40,868	218,698
	한라냉	78,831	451,201
	한라식품	27,215	163,108
	한주식품	20,000	106,000
	양보물산	24,034	137,536
	논산축협	20,000	116,096
풍양산업	1,000	-	
부천산업	69,690	409,780	
소계	7,427,366	41,819,892 (5,631)	
냉장육	제일농장	777,860	5,015,485
	삼원농역	215,380	1,222,778
	아람코	34,727	202,700
	소계	1,028,069	6,440,963 (6,265)
계	22개업체	8,455,435	48,260,855 (5,708)

〈표 4〉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 '90~'92)년도 실적 평균과 '93년 예상

은 50% 정도 방출된 상태이고, 아직도 못찾아가는 업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었다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 연말 경기는 회복세로

지난 호에 언급한 바 있지만, 11월의 시세가 최악의 시세이며, 연말에는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말의 소비 증가에 따라서 회복세의 시기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10월의 사료 생산량은 38만7천톤으로서 9월의 38만7천톤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출하대상돈이 그리 많지 않겠다는 입증으로 보아야겠다.

최근 1개월간의 동향을 분석하여 볼때 10월 하순 6,300두선에서 11월 하순까지 6,300두선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물량이 증가되고 침체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말의 소비가 증가되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회복국면으로 돌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